

도립극단·국악단 용역 심의 문턱도 못 넘어

2018년 용역 심의 통과 후 2년 동안 용역비 반영 안 돼 작년엔 재정 이유 부결 처리 "기존 5개 도립예술단 연계 신규 예술단 설치" 신중론도

상황에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가 2018년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 후 내놓은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에 따르면 도립국악단과 도립극단은 2018년 연구 용역 예산 확보 추진, 2019년 설립 타당성 용역, 2020년 도립국악단과 도립극단 설립, 2022년 상설 공연 프로그램 운영을 담고 있다. 2022년까지 두 예술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3억원으로 제시했다.

비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2년이 흘렀다. 이에 지난해 9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다시 용역 심의를 신청했다. 학술용역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용역 심의 통과 후 해당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2년 동안만 가결 내용이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이던 지난해 심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용역비를 포함 도립예술단 추가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또한 한 번 도립국악단과 도립극단 용역 심의를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제주도가 전국 시도립 국악단·극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으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였다. 국악단은 대구, 전남, 경북,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옛 도립국악단), 부산(국악관현악단), 광주(국악관현악단),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강원(국악관현악단), 서울(청소년국악단)로 파악됐다. 제주 문화계 일각에서는 기존 5개 도립예술단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연계해 신규 예술단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르별 예술단을 모두 갖출 수 없는 만큼 재정 여건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 수급, 지역 공연의 특성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halla.com

민선 7기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도립국악단·도립극단 설립'이 지난해 하반기 용역 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임기 1년여를 남기고 대선 출마를 위한 제주도지사 중도 사퇴 시기가 나돌고 있는

제주 바다 공동체 정신 깃든 원담

정은희 작가 원담 사진전 '원담...' 출간 기념회 겸해 10여 개 어촌 마을의 유산

소 대표로 활동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의를 하고 있는 정은희 작가가 '원담, 제주 바다를 담은 그릇' 출간을 기념해 원담 사진전을 연다. 그가 원고를 쓰기 위해 어촌 마을 10여 곳을 걸으며 직접 촬영한 원담 사진 20여 점이 나온다. 원담은 바다에 돌로 담을 쌓은 뒤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멸치 등 해산물을 잡을 수 있게 만든 곳을 말한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쌓은 원담에서 얻은 수확물은 그 노동에 참여한 이들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돌아간다. 정 작가는 "원담은 이웃과 함께 활동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깃든 장소"라고 했다. 형태는 물론 그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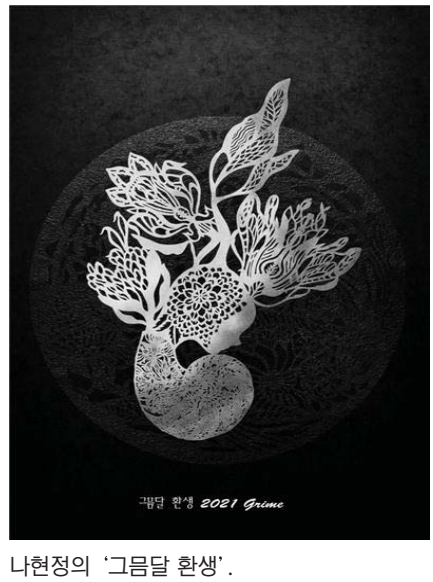


정은희 작가가 촬영한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 멜트개.

마저 희미해져가는 원담의 가치에 그가 주목하는 이유다. 전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두 차례 열린다. 이달 25-29일에는 갤러리비오톱(제주시 신성로6

길 29), 7월 1-31일에는 책방이나 카페에서(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20번길 19)를 찾는다. 이달 26일 오후 3시에는 갤러리비오톱에서 출간 기념식이 예정됐다. 진선희기자

그가 제주에 정착한 해는 1990년. 남편의 고향인 제주시 예월읍의 한 어촌 마을에서 10여 년간 시부모와 안거하며, 밖거리 생활을 하며 '제주 생활문화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그 시기에 문을 열면 눈에 들어오던 해안의 '원담'을 잊지 못했다. 얼마 전 '원담, 제주 바다를 담은 그릇'을 집필한 배경에도 그 풍경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제주문화교육연구



나현정의 '그림의 탄생'.

그림자 예술에 담은 삼승할망 이야기

나현정 작가 서귀포 개인전 기법·재료·조형적 실험 작업

아기를 잉태시키고 어머니 배 속에서 열 달이 차면 출산하게 해주는 산육신을 일컫는 제주 무속신화 속 삼승할망. 제주에 정착해 아트 스튜디오 오 그리메를 운영하며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어나가고 있는 나현정 작가는 일찍이 삼승할망에 마음이 끌렸다. 삼승할망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엄

과 보살핌, 공존공생하는 자연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가 또다시 삼승할망을 불러냈다. 서귀포시 도심에 자리 잡은 이층섬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삼승할망, 비밀의 숲-잊히지 않음 2021'을 주제로 개인전을 펼치고 있다. 삼승할망 주제 전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종이 커팅과 세도우 아트를 이용한 평면 작품을 보여줬던 나 작가는 이번엔 기법, 재료, 조형적 실험으로 기존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려 했다.

사물 뒤에 생기는 그림자가 아닌 아예 전면엔 그림자를 등장시키는 방식이다. 한지 표면 위에 수많은 선들이 그려내는 패턴은 식물의 형태를 연상시킨다. 나 작가는 "그림자 조형언어로 그려내는 삼승할망과 삼승이들, 그리고 저승할망이 상호 공존하며 풀어내는 이야기"라며 "비밀의 숲을 지키는 할망나무의 가지에서 피어나는 작은 새들이 노래하는 새로운 탄생과 환생을 형상화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이달 17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계곡이김밥** <256>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렘. "두 아은 가나귀털이 가는 길 딱란 오단 펜펜흔 질 어염에 이신 낭에 직산흔 쉬엇주. 이던 북름이 막아진디난 열지 안 헝엇주. 남조 아은 여즈 아의 구무꾼 발이 남이 즈들어전 우선 웃 고름 바련 토틀흔게 차메 쫓주. 스방에 신 가나귀털도 그제사 머심 뇌진생이라 안심 헝엇져. 남조 아은 가나귀털 신디 고맙덴 손을 흥글어헝주. 여즈 아은 발이 아프덴 헝명 헝곱 싯당 가시민 헝엇주. 경헌남 남조 아은 먹을 커라도 줘사켜 헝명 지영 은 포파릴 풀엇주."

*** 제주어 풀이**

- *가는 길 딱란 오단 : 가는 길 따라서 오다가.
- *펜펜흔 질 어염 : 편편한 길 옆으로.
- *이신 낭에 직산흔 쉬엇주 : 있는 나무에 기대어 쉬었지.
- *구무꾼(구무꾼다, 구무꾼다, 구무꾼다, 구무꾼다, 구무꾼다, 구무꾼다, 구무꾼다) : <움직> 회목 관절이 무엇과 마주쳐 제 정도에 지나게 접해서 뻗 지경에 이르다.
- *즈들다(저들다) : <움직> 격정하다. 근심하다. 성가시하다.
- *바리다 : <움직> 찌지다.
- *고맙덴 손을 흥글어헝주 : 고맙다고 손을 흔들어들었다.
- *헝곱 싯당 가시민 헝엇주 : 조금 있다가 갔으면 했지.
- *먹을 커라도 줘사켜 헝명 : 먹거리라도 주려고 하면서.

고재민 화백

문화가 쏙지

서귀포에당 7주년 음악회 **노지문화탐험대 30팀 선발**

2014년 6월 19일 문을 연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개관 7주년을 축하하는 무대를 꾸민다. 이달 19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경축 음악회다. '브라보 서귀포!'란 제목을 단 이번 개관 7주년 기념 공연에는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박미자·신지화, 테너 이경원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가 출연해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조두남의 '또 한송이 나의 모란'과 '산촌',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등에서 '하비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을 들려준다. 관람료는 1층 1만5000원, 2층 1만원. 서귀포시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으로도 온라인 실황 중계가 이뤄진다.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내건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마을의 노지 문화 탐구에 관심 있는 문화 소모임을 지원하는 '2021 노지문화탐험대'를 선발한다. 노지문화탐험대는 지역민 3인 이상으로 구성돼 약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만남, SNS 홍보를 벌이고 향후 모임이 지속 가능하게 꾸려져야 한다. 총 30팀을 선발해 1팀당 100만원 이내 활동비를 지원하고 탐험대 등록증 발급, 시민공유공간 무료 이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모집은 이달 24일까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 767-9503.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특허 제10-2078975호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 특허 제10-2182942호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 고풍압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셔터 별도판매
-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